토론토 우드브릿지 큰무리교회 (GMPC)

일과 영성 Every Good Endeavor

2020 02 01

일과 영성 책 읽기에 참석하고 나서 (노영래)

이 모임에 목사님의 권유로 일주일에 한번씩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으나 다양한 영역과 사상들로 풀이해 나가는 책이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고 몰라던 부분들을 알게되어서 유익하였고 세계관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의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주신 것은 범죄의 댓가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기전에 하나님 당신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개발하라고 일을 맡겨 주신것이라는 부분을 읽으며 일은 곧 노동이고 힘들다고 생각해 왔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나에게 주신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의 다음 부분에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끝없이 타락하는 일의 세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인간의 탐욕과 죄성으로 인해 문화나 사상들을 통해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타락하고 있음을 보며 깨어 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안내와 조명을 받으며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정립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일에 대한 이원론을 다루는 부분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나 전문성은 크리스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정독을 하며 일과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